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시민기록단 ‘미추홀 송의목공예마을’ 기록					
구술자명	강오원	면담자	표기자			
면담장소	고전공예 사업장	면담지원	양지원			
면담 일시	2022년 9월 27일	회차	2	시간	58분 12초	
자료번호	MichuholCA-08-00001691					
구술 개요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나 개구진 어린 시절을 보냄. 중학교 때 형님 지인을 만나 조각을 배움.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다가 가게 하나를 얻어 조각, 납품을 시작함. 가구 공장 운영하다가 다시 송의동으로 와 지금의 사업장을 차림. 목공 산업의 전망은 어려울 것이라 봄.					
주요 색인어	고향, 조각, 금호동, 가구, 납품, 바로크, 창작, 중국, imf, 나무, 마디카, 국산, 공구, 일본, 송의동, 협동조합, 융화, 도움, 구청, 작품, 발레 학원, 전시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고향, 소년 시절				▷ 활동기획안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녹취문		
- 고향은 경상북도 안동 하회마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 동네 - 초등학교 때 술래잡기, 고무줄 자르기 하면서 놀았음. 개구쟁이였음.						
2. 목공일 시작						
- 중학교 다니다가 학교 공납금을 못 내서 뛰쳐나옴. - 금호동에 형님 아시는 분이 조각한다고 해서 배움. 적성에 맞아 그때부터 조각 일을 시작함. - 금호동 공장이 어려워져 갈현동 모규현 씨에게 가구 조각을 제대로 배움. - 우연히 인천 도원동에 살다가 가구 공장 기술자로 취직. - 고향에 내려가 방위 근무를 함. - 2년 근무 후 다시 올라와서 울목동에서 방을 하나 얻어서 일을 조각, 납품 시작함. - 시간이 지나 도원동 옆에 가게를 하나 얻어서 일을 하다가 큰 거래처와 일을 하게 됨.						
3. 바로크 가구에 조각 납품						
- 바로크에 조각을 할 때가 재밌었음. - 조각 창작 시 아이디어 발상의 근원은 남의 것 견인, 외국 서적 - 중국 가구가 들어오면서 가격 경쟁에서 밀렸음.						
4. IMF 시절						

- imf 오기 3~4년 전에 바로크는 정리하고, 가구 공장 시작. - 한 3년 하다가 공장 접음.		
5. 나무 이야기		
- 목재 회사에서 수입한 나무 사다가 씀. - 국산 나무는 0.001%도 없음. - 국산 나무는 수급이 안됨. - 옛날엔 나무를 배에 연결해서 등등등 끌고 들어왔음. - 정성 들여 만든 물건을 엉성하게 묶어 보내려니 불안함.		
6. 공구 이야기		
- 공구가 좋으면 일하기가 쉬움. - 일본 기계 많이 씀.		
7. 승의동에서 활동 이야기		
- 공예사 나무 쪽은 단합이 전혀 안 됨. - 자기 전문분야만 해야 하는데 다른 분야를 얼렁뚱땅 만들어서 싼 가격에 팔아버리니까 융화가 안 됨. 가격을 흐려 나 버림. - 구청에서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음. - 센터에 나가 강의를 나감.		
8. 승의동 2		
- imf 때, 승의동으로 옴. - 도원역 근처가 도로 확장 공사로 헐려버려서 배다리로 쫓겨나듯 이사함. 유동삼거리에 가게 하나 얻었는데, 거기 또 헐려서 승의동으로 옴. 가구공장 운영한다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옴. - 가구 공장 정리하고 한동안 현장 인테리어 배움.		
9. 다양한 조각품들		
- 벽등, 직조기 등 조각품들이 아주 다양함. - 목재 산업 분야는 힘들 것. 힘든 일 배우러 오는 사람이 없음.		